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5



▶한줄요약
인도에 도착한 이주석 기자와 송 서화가는 천추사원으로 가는 길에 먼저 이번 사건을 보도한 뉴델리안 신문기자를 만났다.

# "그 성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물을 찾아서 1

-가난한 대학생이라 사실 그땐 뒷골목 방도 감지덕지였습니다. 돈이 없어 난장 어쩌고 한 것 같아요. 그래 놓고선 그렇게 여행한 것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며 자랑이나 해대고. 하하하…. 국장님에게 들으니 아직 혼자시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총각입니다.

-그럼 뭐 즐길 날이 구만리네요. 제 나이쯤 돼야 이런 곳에 오면 다시 풀어지지요. 마누라 눈총도 없고 간섭도 없으니…. 하하하.

방을 얻어놓고 철저히 즐기기나 하자는 생각이 달콤한 과즙처럼 목으로 넘어갔다.

진탕을 좀 치다가 일해도 괜찮을 것이야. 그놈의 지긋지긋한 신문사 생활, 적당히 즐길 절호의 기회….

뒷골목을 돌아다니다가 방을 하나 얻었다. 그래도 깨끗한 방을 원했는데 생각만큼 깨끗하고 조용하지 않았다. 깨끗한 방이 600루피라는 바람에 끌려왔는데 아니었다. 전에 왔을 땐 400루피에 얻었던 것 같은데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며 따라가 보니 이렇게 지저분한 방에서 묵을 수 있을까 싶었다. 그녀와 함께 왔을 때가 언제였더라? 세월이 한참 흘렀다 하더라도 400루피 방보다도 못하였다.

송 서화가는 별 싫은 표정이 아니었다. 이왕 자유를 만끽하려면 이런 곳이 제격이라며 방을 얻자고 했다. 그도 대학 다닐 때의 방랑벽이 되살아난 것인지 몰랐다.

그래 얻게 된 방. 하루에 600루피. 좁은 골목 끝에 붙은 방이었다. 화장실 냄새가 나는 곳이었다. 침대 하나만 달랑 있는 방이어서 하는 수 없이 침대 하나를 더 들이기로 했다. 주인은 침대 하나를 더 들여 주면서 큰 은혜나 베풀 듯이 굴었다.

-침대 하나를 공짜로 넣어주는 곳이 어디 또 있겠소?

침대 위의 이부자리를 들쳐보니 간밤에 연인이 묵었는지 아직도 얼룩이 마르지 않았다. 비릿한 냄새에 울컥 욕지기가 올라챘다. 손으로 프린팅한 순면 이불이긴 하였지만 한 땀 한 땀 떴을 라인이 헤어질 대로 헤어진 낡은 이불이었다. 내가 이 불을 둘둘 말아 집어 던져 버렸다.

주인이 어이가 없는지 나를 쳐다보다가 이불을 들쳐보고는 말없이 가지고 나갔다.

내가 앞장서서 나오는데 주인이 황급히 다른 이불을 들고 나와 너스레를 떨며 나를 잡았다.

-종업원이 미처 챙기지를 못했으니 이핼 허시오. 다른 곳으로 가봐야 이만한 방 800루피 안 주고 쓸 것 같으오?

-사람을 어떻게 보고.

말 같잖은 소리였다.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강물에 세수하고 목욕하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있어 신성은 더러움과 무관하다. 우리가 깨끗하다고 하면 더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더러움이 우리의 깨끗함 위에 있다면 싸워봐야 그들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두 눈 딱 감고 모든 것이 불결해 보이기만 한 그곳에 여장을 풀었다. 이곳의 생리를 겪어 보았기에 주인 말대로 그래도 600루피라면 싼 편이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보면 바가지 쓰기 십상이라 마지못한 듯 그냥 머물기로 했다.

덜덜덜….

고물 선풍기가 늙고 쇠락한 인생처럼 금방이라도 나자빠질 것 같았다. 그나마 그런 선풍기라도 있어 다행이었다. 참아내기 힘든 더위를 그것이 날려주었다. 밖이 시끄러워 나가보니 시집을 오면서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여 두 집안이 싸우고 있었다.

혼자 뉴델리 중심지인 코노트 플레이스로 갔다. 언제였나? 이곳에 온 지가. 이제는 혼자구나.

감회가 새로웠다. 그날처럼 시민들이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원형 잔디밭이 여전히 푸르르다. 아차 하는 순간 새들이 신발에 변을 갈기고 달아나듯 날아갔다.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거지 행색을 한 사내들이 다가왔다. 새똥을 닦아주고는 엄청난 액수를 요구한다. 예전과 변한 것이 없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돈을 뜯기고 나서도 이게 이 나라 문화의 특색이라 생각하니 그렇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코노트플레이스 주변에 노점상들이 그대로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음료수를 파는 노점상들. 그때도 여름이었다. 더워 길가에서 그녀와 함께 음료수를 사서 먹었을 것이다.

맞아. 저 집인가? 지하로 들어갔다. 다른 곳은 그대로인데 이곳은 정말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사이에 이 나라가? 정보산업의 대국이 되었음을 입증이라도 하듯 가게마다 컴퓨터와 게임기가 산처럼 쌓였다. 코노트플레이스 주변에 있는 고급 시계점도 여전했다. 시계를 사주며 그녀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사는 모습은 거기가 거기인 게 분명하다. 역 주변에는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언제나처럼 서성거리고, 가끔 요가를 보이는 수행승들의 모습도 보인다. 머리를 땅에 박고 어깨와 하체를 허공으로 들어 올린 채 오랜 시간을 버티고 있는 것이 예전에 본 그대로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기도 했었던 게 어제 같은데 오늘도 여전하다. 수행의 힘이라는 것이 저렇게 무서울 수도 있구나.

무굴제국의 샤자한이 죽은 왕비를 애도하여 만든 타지마할의 모델이 되었다는 후마윤 왕의 묘지로 갔다. 예전에 그녀와 함께 가보자고 하다가 가보지 못한 곳이다.

신비롭다. 인도의 다섯 번째 이슬람 왕조인 무굴왕조의 제2대 황제 후마윤(1508-1556)은 도서관 계단에서 죽었다. 그가 죽자 하지베굼이라는 이름의 왕비는 그가 살던 델리 근처에 페르시아 건축가 구미자기를 시켜 아름다운 묘를 만들었다. 인도인들은 환생은 믿고 내생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죽은 사람을 위해 정사각형의 넓은 정원을 바둑판같이 나누어 그 중앙부에 묘역을 마련한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예전의 추억을 떠올리듯 이 이상한 나라에 나는 다시 와 있다고 생각하며 기웃거렸다. 그러고 보면 참으로 이곳은 우리가 살던 곳과는 다른 곳인 것만은 분명했다. 윤회를 믿고 환생을 믿고 그렇게 인간존재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나라.

언젠가처럼 채 정화되지 못한 방탕기가 슬며시 고개를 내밀 것 같아 마음을 다잡고 숙소로 돌아왔다. 송 서화가와 뒷골목에서 술을 한 잔할까 했지만 고개를 내저었다.

지긋지긋한 신문사 생활을 떠나 자유로운 여행객들처럼 한동안은 지낼 수 있다. 그러다 보면 해야 할 일이 뒷전이 되고 만다. 낯선 곳에서의 방탕기는 여행객이 가장 조심해야 할 덕목이다. 잘못하면 이상한 곳으로 빠져 털털이가 되어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미아가 되고 만다.

2

천추사원으로 떠나려고 하자 비가 왔다. 빗발이 거세지 않았으므로 먼저 이번 사건을 보도한 바 있는 뉴델리안 신문기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송 서화가와 함께 물어물어 신문사로 찾아 들어갔다. 신문사는 대로변이 아닌 골목길 막다른 곳에 있었다. 낡은 블록 건물이었다. 이곳이 정말 신문사일까 싶었다. 윤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라 철거덕 철거덕 하는 인쇄기 소리가 정문 앞까지 훤히 들렸다. 주위는 온통 오물투성이어서 오물들을 밟을까 요리조리 피해 신문사로 들어갔다.

우리를 맞은 사람은 육십 대의 정형적인 인도인이었는데 수염이 산타처럼 수북하게 난 사람이었다.

잠시 후에 찾던 기자가 나왔다. 서른 중반의 사내였는데 뜻밖에도 그는 한국 사람이었다. 작달막한 키에 곱슬머리였다. 눈이 동그랗고 까맸다. 코가 높고 입이 작았다. 살결이 초콜릿 빛을 띠고 있었지만 분명 그는 한국인이었다.

그도 좀 놀란 표정이었다.

-한국인입니까?

내가 먼저 물었다.

-맞습니다.

그렇게 썩 발음이 좋지 않았지만 분명 한국말이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그는 혼혈아였다.

-이주석입니다.

-오오스마(Oosma)입니다. 한국 이름은 지상오구요.

오오스마? 햇빛? 따뜻함? 그런 뜻인가? 한국 이름에 성을 붙이면서 이곳 이름에 성을 붙이지 않는다? 오오스마가 분명히 성이 아니고 보면 인도네시안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에게는 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 그의 조상들이 이주했다면 그럴 수 있다. 인도인의 후예라면 성이 없을 리 없다. 카스트가 무엇인지 패밀리 네임이 대변하기 때문이다. 성씨만 들어도 신분을 알게 되어 있는 나라가 이 나라다. 성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이 없는 하층민 불가촉천민이거나 인도네시안이 분명하다.

그래서 더 한국인에 가깝다?

그렇다면 아마 한국인 여자와 인도네시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일지 모른다. 어쨌든 그가 이곳 천민 층의 자제일 경우 여자가 한국 남자를 만나 애를 낳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 남자를 만나 한국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월이 변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 나라 여성의 위치는 원치 않는 아이(Unwanted baby) 수준이다. 남아선호 사상에 의해 여자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다. 태어난다고 해도 제 삶을 살아 보지도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태반이다. 다행히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장래가 밝지는 않다. 남자아이들과의 경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다반사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차별은 사회로 확대되고, 나아가 결혼과 함께 대물림된다. 이곳 차별의 이중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곳이 천민 층이라면 그가 혼혈아로서 정기 교육을 받아 기자까지 된다는 것은 그의 신분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만한데 성이 없다?

머리카락이 곱슬머리이고 얼굴이 검고 키가 작달막해서인지 그렇게 귀족 냄새가 나지 않는데….

그의 가정환경이 어떤지는 몰라도 생김새도 그렇고 퍽 한국적 정서에 익숙해 있는 것 같아 어딘가 친숙해 보이고 소탈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인사가 끝나자 오오스마 기자가 송 서화가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송 서화가와 내가 그에게 찾아온 이유를 털어놓자 그는 흰 이를 드러내며 씩 웃다가 이런 말을 했다.

-관심이 많긴 많나 보군요. 하기야 그 성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으니….

-그런데 그 성물 말입니다.

-네?

-정말 석존께서 남기신 성물이 맞는가요?

-글쎄요? 다들 맞는다고 하니까. 맞댑니다. 나도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썼고요.

이 세상에 그런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만 그는 눈 한 번 깜빡이지도 않고 당연한 듯 말했다.

-정말 궁금하군요. 그 사연이.

-그렇지요?

오오스마 기자가 오히려 동의를 구하듯 내게 되물었다.

-그런데 그 성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계속〉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원금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수방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부방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이체 희망일
□ 5일 □15일 □2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